

보육교사의 평가인증 경험에 따른 평가인증제에 대한 인식비교 -2차 평가인증지표를 중심으로-

Childcare Teacher's Perception of the Accreditation System Based
on Accreditation Experience

-Focused on the Second Accreditation Index of Childcare Centers-

조현옥(Cho, Hyun-Ok)* · 최인화(Choi, Inhwa)**

본 연구는 1차 평가인증지표를 토대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평가인증 경험에 따라 평가인증의 운영과 제2차 평가인증 지표의 실현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1차 평가인증에 통과한 40인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19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으며, 빈도분석, χ^2 검증, t-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보육교사의 평가인증 경험에 따른 평가인증제 운영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평가인증 통과 후 사후 유지관리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에서만 나타났다. 인증경험이 없는 교사는 '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인증경험이 있는 교사는 '보육교사의 의지 및 지속적 근무'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평가인증 경험에 따른 인증지표의 실현성에 대한 인식은 보육환경 영역의 '예술활동자료', 운영관리 영역의 '보육시설의 운영방침 및 정보 안내', '원아에 대한 관리', '종사자의 근로계약', 건강과 영양 영역의 '식자재, 조리 및 배식과정의 위생적 관리',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의 보호', '영유아와 종사자의 건강관리', '영유아를 위한 간식', 안전영역의 '영유아의 안전한 인계과정' 항목에서 평가인증 경험이 있는 보육교사가 경험이 없는 교사에 비해 실현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평가인증 참여경험이 있는 교사가 제2차 평가인증지표의 실현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2차 평가인증지표, 보육교사

* 제1저자: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국 근무

** 교신저자: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조교수, ichoi@mju.ac.kr

I. 서론

여성의 역할 및 능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변화는 기혼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증가시키고, 핵가족이라는 가족기능의 축소는 전통적으로 가정 내에 국한되었던 자녀양육의 책임을 가정 외 시설 및 교육기관으로 확대하는 현상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영유아 양육 및 교육에 보육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보육의 초기개념은 부모의 자녀 양육역할을 보완하는 서비스로서의 성격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므로 보육서비스란 여러 가지 이유로 낮 동안 그들의 친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동들에게 주어지는 보호를 말하는 것으로 가정에서의 정상적인 보호를 보충해야 할 상황에 부닥쳤을 경우, 하루에 몇 시간씩 가정 밖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된 서비스를 의미하였다(오정수 · 정익중, 2008). 빈곤층 취업모나, 한부모 가족의 영유아를 중심으로 단순히 가족기능의 보충적 서비스로의 성격이 강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보육의 패러다임 역시 변화하였다. 2004년 영유아 보육법의 전면적인 개정으로 영유아 보육업무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나 저소득층의 맞벌이 가구 자녀를 위한 선별적인 보육에서 탈피하여 보육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부모와 국가가 함께 책임을 지고, 균등하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보육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다(조혜숙, 2008).

보육서비스의 확대와 함께 양질의 보육에 대한 요구는 높아져 왔고 영유아기 보육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가 많이 발표되었다. 보육서비스 수준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가 활발하게 제기되면서 과거 양적 확충 위주였던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제고와 유지 방안에 관심이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도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2006년도부터 평가인증 제도를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하기에 이르렀다(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국, 2010).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는 미국에서 전미국유아교육협회의 주관으로 1986년부터 시행(NAEYC, 2009)된 이래 세계 유아교육계에 영향을 주어 독일, 일본, 영국,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평가인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 중 호주는 민간단체에 의해 평가인증제가 시행되는 미국과 달리 평가인증 제도의 운영을 정부가 지원하고 직접 시행한다(NCAC, 2009). 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질 관리를 위하여 정부와 독립적인 국립보육인증위원회를 1993년에 설립하여 1994년에 기관중심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시작으로 2001년에 가정보육시설 그리고 2003년에 방과 후 보육시설을 위한 평가인증제를 차례로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의 평가인증제는 2002년 3월 보건복지부에 의한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가 포함되면서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 1월에는 영유아 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하여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에 관한 근거법이 마련되었고, 2004년 10월 여성가족부에서 '보육평가인증 사무국'을 설치하여 2005년에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시범운영이 시행되었다. 2006년 1월부터는 여성가족부의 '보육시설 평가인증 사무국'이 육아정책개발센터로 위탁. 이관되어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2010년 1월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수행기관으로서 재단법인 '한국보육진흥원'이 출범하여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제도를 맡고 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은 일정한 기간을 주기로 하여 점진적으로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해 나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되고 있다. 2006년부터 '인증참여 격려'라는 추진목표로 시행된 보육시설평가 인증은 2009년에 1차 시행이 완료되었고, 2010년 현재 제2차 시행시기를 맞이하여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안정화를 목표로' 시행되고 있으며 2013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그리고 3차 시행은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목표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될 계획이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에서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평가인증지표이다.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국에 따르면 1차 평가인증 지표는 2005년 시범운영 당시 4종의 지표 21인 이상, 21인 미만,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용으로 구성되었으나, 시범운영을 통해 수정·보완이 되는 과정을 거쳐 21인 이상, 21인 미만,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용 지표 3종으로 완성되었고, 2007년에는 21인 이상, 20인 이하,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용 지표로 수정되었다. 그리고 2008년 평가인증 개선안 적용안에 따른 지표유형 적용기준이 변경되어 40인 이상, 39인 이하, 장애아전담 평가인증지표로 구성되었다. 현재는 2010년부터 적용되는 2차 인증 지표로 40인 이상 보육시설용 6개 영역 70항목, 39인 이하 보육시설용 5개 영역 55항목,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용 6개 영역 75항목으로 시설규모 및 유형에 따라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를 통해 시행된 1차 평가(2005년 시작 ~ 2009년 완료) 후 결과는 전국 어린이집 35,550개소(2009. 12월 말 기준) 중 2010년 6월 기준으로 33,284개소(93.6%)가 평가인증 과정에 참여 신청을 하였고, 그중 20,402개소(57.4%)가 인증에 통과하였다(비전보육, 2010). 그리고 1차 평가 후 수정한 제2차 지표를 적용한 평가 인증 결과 발표(보건복지부, 2010)에 의하면 2010년 2월에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 중 604개소가 인증을 통과해 2010년도 9월 기준으로 전국 2만 1,006개(전체 보육시설의 59.1%) 어린이집이 인증을 통과했다.

시기별 평가인증 통과율은 제1차 평가인증에는 참여한 어린이집의 80.4%가 인증에 통과하였으나, 제2차 지표를 적용한 평가인증 통과율은 평가인증을 신청한 시설

의 68.4%로 다소 낮아졌다(<http://cyberpr.mw.go.kr>). 이는 통과점수를 상향 조정 (73.33→75점)한 영향도 있겠지만, 1차 평가인증 후 수정한 제2차 평가인증 지표에서 기인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평가인증제도를 통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의 제공은 보육시설 자체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노력에 달려있다. 아무리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좋은 대안이 평가인증이라고 하더라도 보육현장에 적용할 수 없는 지표라면 보육교직원들의 평가인증에 대한 참여 의지를 높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보육 현실에 적용하게 될 지표는 무엇보다도 보육현장에서 실현 가능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이 시행되는 2차 평가인증 지표에 대한 보육현장에서의 실현성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1차 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의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1차 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이라도 보육교사의 이직률이 높은 현실(최숙희, 2011)을 고려하면 평가인증 경험이 없는 교사들도 상당수 있을 수 있고 이들의 2차 평가인증 지표에 대한 인식은 1차 평가인증 지표를 이용하여 평가인증을 경험한 교사들과는 다를 수 있다. 2차 평가인증지표가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평가인증의 목적을 실현하기에 적합하다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미 1차 평가인증지표를 통해 평가인증을 경험한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평가인증 경험이 없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실현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선행연구(김향은, 2008; 원정아 · 이진희, 2008; 이정숙, 2009; 장상란 · 서현아, 2009; 하영례, 2008)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평가인증 준비과정에서의 과중한 업무 때문에 평가인증에 참여한 교사들이 재인증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지만, 평가인증 이후 보육의 질이 향상(하은경 · 김주후 · 김경란, 2008)되었기에 평가인증 완료 후 다시 신청하겠다는 의견 또한 많다(금미숙, 2007; 장상란, 2008; 황인숙, 2006). 평가인증을 경험한 보육교사들은 평가인증 경험이 없는 보육교사에 비해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 발달 수준이 높으며(채혜선 · 현정희, 2008), 평가인증 과정에서 받은 교육이나 평가인증 통과 후 사후유지 관리를 위해 평가인증 지표를 이용한 경험 등을 통해 지표에 대한 이해가 높을 수 있고 이는 2차 평가인증지표의 실현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1차 지표를 통해 이미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평가인증 경험이 있는 교사와 처음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교사 간에 평가인증 운영과 제2차 지표에 대한 실현성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선행연구는 제1차 평가인증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식 연구(김수향 · 최연화, 2009; 김현주, 2007; 박복매,

2005; 원정아 · 이진희, 2008; 유희정 · 이은혜 · 최정은 · 김문정, 2007; 전수옥 · 전예화, 2007; 채혜선 · 현정희, 2008; 하은경 · 김주후 · 김경란, 2008)가 대부분이었으며, 1차 평가인증 지표에 대한 실현성 연구(박은주, 2007), 평가인증 후 지표에 대한 인식(강옥주, 2008), 사후 관리에 대한 연구(김동래, 2007, 장상란 · 서현아, 2008, 황채영, 2009)가 이루어졌다. 평가인증 지표의 영역별 연구는 백영애 · 심성경 · 최대훈 · 박주희(2005)와 이미정(2009)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이는 21인 이상과 20인 미만의 지표 항목에 의하거나, 영아전담 보육교직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박은주(2007)와 김복희(2010)에 의해서도 인증지표의 실현성 및 적절성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7개 영역별로 보육교사와 원장의 인식연구에 그쳐 평가인증 지표의 영역별 구체적 하위 항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보육교사의 평가인증 참여 경험에 따라 지표의 실현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가 없다. 또한, 제2차 평가인증시행이 2010년 6월, 참여시설 1기 관찰을 시작으로 시행 초기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평가인증의 기준이 되는 제2차 평가인증 지표의 실현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평가인증 경험에 따라 평가인증제의 운영과 2차 평가인증지표의 실현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는 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한 체계적인 평가인증 지표를 마련하고, 평가인증에 관한 보육교사의 효율적인 교육방법을 모색하여, 평가인증제 시행의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보육교사의 평가인증 경험에 따라 평가인증 운영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보육교사의 평가인증 경험에 따라 평가인증지표의 실현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1차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이다. 서울, 인천광역시, 경기도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보육시설 찾기를 통하여 평가인증을 통과한 40인 이상 어린이집을 파악한 후 전화를 걸어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설문조사를 허락한 어린이집에 우편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 총 22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며 나중에 직접 방문하여 205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무응답이거나 일부 답안이 빠지는 등 답변이 성실하지 않은 12부를 제외한 총 193부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수	구 분	인증경험 있는	인증경험 없는	전체 빈도 (%)
		교사 빈도 (%)	교사 빈도 (%)	
연령	20대	81(61.8)	38(61.3)	119(61.7)
	30대	33(25.2)	14(22.6)	47(24.4)
	40대	16(12.2)	10(16.1)	26(13.5)
	50대	1(0.8)	0(0)	1(0.5)
학력	보육교사양성과정	15(11.5)	8(12.9)	23(11.9)
	전문대 졸업	60(45.8)	29(46.8)	89(46.1)
	4년제 대졸	49(37.4)	21(33.9)	70(36.3)
	대학원 졸	7(5.3)	4(6.5)	11(5.7)
전공	유아교육학	58(44.3)	18(29.0)	76(39.4)
	사회복지학	12(9.2)	8(12.9)	20(10.4)
	아동학	22(16.8)	14(22.6)	36(18.7)
	보육학	35(26.7)	20(32.3)	55(28.5)
	기타	4(3.1)	2(3.2)	6(3.1)
보육교사 경력	1년 미만	8(6.1)	21(33.9)	29(15.0)
	1-2년	11(8.4)	17(27.4)	28(14.5)
	3-5년	57(43.5)	15(24.2)	72(37.3)
	6-9년	34(26.0)	7(11.3)	41(21.2)
	10년 이상	21(16.0)	2(3.2)	23(11.9)
현재 근무 보육시설의 유형	국공립 보육시설	76(58.0)	32(51.6)	108(56.0)
	법인 보육시설	11(8.4)	3(4.8)	14(7.3)
	민간 보육시설	44(33.6)	27(43.6)	71(36.7)
전 체		131 (100)	62 (100)	193 (100)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는 제2차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하는 '2010년 보육 시설평가인증 지침서'(보건복지가족부)와 평가인증제에 관한 이옥 · 유희정 · 이미화 · 김온기 · 이원선(2008)과 김동례(2007)의 질문지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일차적으로 작성된 질문지는 아동학 전공교수 1인,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보육경력이 10년 이상인 현직 원장 5인과,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보육경력 10년 이상인 현직보육교사 5인에게 의뢰하여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질문지의 구성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묻는 6문항, 평가인증제 운영에 대한 인식 4문항과 평가인증지표의 실현성을 묻는 70문항의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평가인증지표의 하위 항목별 실현성을 묻는 각 문항은 '매우 실현성이 낮다.'에서 '매우 실현성이 높다.'의 5점 평정척도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질문지의 구성

구 분	내 용	문항 수
일반적 사항	근무시설의 유형, 연령, 학력, 전공, 경력, 평가인증참여 경험	6
평가인증제 운영에 대한 인식	조력방법, 평가인증 조력자, 평가방법, 인증 후 사후유지관리	4
2차 평가인증지표의 실현성에 대한 인식	보육환경 (11항목)	70
	운영관리 (12항목)	
	보육과정 (14항목)	
	상호작용과 교수법 (11항목)	
	건강과 영양 (12항목)	
	안전 (10항목)	
	전체	80

3.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PC Win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먼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보육교사의 평가인증 경험에 따른 평가인증제의 운영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스퀘어 검증 (χ^2), 평가인증지표의 실현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보육교사의 평가인증 경험에 따른 평가인증제의 운영에 대한 인식

평가인증제의 운영에 대한 인식을 평가인증에 가장 도움이 되는 조력방법, 바람직한 평가인증 조력자, 평가인증 참여단계에 따른 평가 방법, 평가인증 후 사후유지 관리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보육교사의 평가인증 경험에 따라 평가인증제의 운영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보육교사의 평가인증제 운영에 대한 인식

구 분	인증경험	인증경험	전 체 (n=193)	χ^2	
	없음 (n=62)	있음 (n=131)			
		빈도(%)	빈도(%)		
가장 도움이 되는 조력방법	인증지표에 대한 교사교육	21(33.9)	35(26.7)	56(29.0)	6.91 df = 6
	우수시설 방문을 통한 조력	10(16.1)	31(23.7)	41(21.2)	
	보육진흥원 평가인증국 홈페이지	3(4.8)	6(4.6)	9(4.7)	
	정보센터의 홈페이지 및 발간자료	6(9.7)	10(7.6)	16(8.3)	
	정보센터 직원의 방문조력	9(14.5)	30(22.9)	39(20.2)	
	평가인증 통과 된 원장의 조력 워크샵 및 소모임	9(14.5) 4(6.5)	17(13.0) 2(1.5)	26(13.5) 6(3.1)	
바람직한 평가인증 조력자	보육진흥원 평가인증국 직원	12(19.4)	22(16.8)	34(17.6)	3.62 df = 4
	보육정보센터 직원	5(8.1)	4(3.1)	9(4.7)	
	평가인증 통과된 어린이집의 원장	7(11.3)	14(10.7)	21(10.9)	
	평가인증 통과 경험이 있는 교사 별도로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가	5(8.1) 33(53.2)	18(13.7) 73(55.7)	23(11.9) 106(54.9)	
참여단계에 따른 평가방법	같은 평가인증지표 사용	21(33.9)	52(39.7)	73(37.8)	4.05 df = 2
	참여단계 높을수록 강화된 지표사용 참여단계 높을수록 간소화된 지표사용	12(19.4) 29(46.8)	16(12.2) 63(48.1)	28(14.5) 91(47.7)	
사후유지 관리에 중요한 사항	재정 확보	3(4.8)	8(6.1)	11(4.2)	24.22*** df = 4
	원장과 보육교사의 지속적인 교육	39(62.9)	42(32.1)	81(42.0)	
	관련기관의 지속적인 방문지도	9(14.5)	12(9.2)	21(10.9)	
	원장의 의지와 지도력 보육교사의 의지와 지속적 근무	3(4.8) 8(12.9)	8(6.1) 61(46.6)	11(5.7) 69(35.8)	

*** $p < .001$

평가인증을 위한 조력유형 중 가장 도움이 되는 조력방법에 대해 '평가인증 지표 영역 교사교육(전체의 29.0%)', '우수시설 방문을 통한 조력(전체의 21.2%)', '보육정보센터 직원의 현장방문 조력(전체의 20.2%)'의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인증경험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평가인증에 대한 조력은 누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본 결과,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가'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전체의 54.9%), 다음은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국 직원(전체의 17.6%)'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인증경험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평가인증에 처음 참여하는 보육시설과 재인증에 참여하는 보육시설에 적용하는 평가인증지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평가인증 참여단계가 높아질수록 더 간소화된 평가인증지표를 사용하는 것(전체의 47.7%)'이 가장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음은 '평가인증 참여단계에 상관없이 같은 인증지표 사용(37.8%)', '평가인증 참여단계가 높아질수록 더 강화된 평가인증지표 사용(14.5%)'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증경험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평가인증시설의 사후 유지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사항에 대해 인증경험 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 = 24.22, p < .001$) 인증경험이 없는 교사는 '원장과 보육교사의 지속적인 교육(62.9%)'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다음으로 '관련기관의 지속적인 방문지도(14.5%)'를 중요하게 여기며 '보육교사의 의지 및 지속적 근무(12.9%)'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보지만, 인증경험이 있는 교사는 '보육교사의 의지 및 지속적 근무(46.6%)', '원장과 보육교사의 지속적인 교육(32.1%)', '관련기관의 지속적인 방문지도(9.2%)' 순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을 보였다.

2. 보육교사의 평가인증 경험에 따른 인증지표의 실현성에 대한 인식

1) 보육환경

보육환경 영역 평가인증지표에 대한 실현성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보육환경 영역의 11개 지표항목에 대한 실현성 인식 정도는 5점 만점에 인증경험 없는 보육교사의 전체평균이 3.64점($SD=.62$)로 인증경험이 있는 보육교사의 3.76점($SD=.57$) 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세부지표는 '예술(미술, 음악, 동작) 활동자료'($t=2.82, p < .01$)로, 평가인증경험이 있는 보육교사의 실현성 평균 점수가 3.98점($SD=.83$)인데 비해 평가인증경험이 없는 보육교사의 실현성 평균 점수는 3.61점(표준편차 0.86)이었다. 즉, 평가인증경험이 없는 교사는 평가인증 경험에 있는 교사보다 미술, 음악 및 동작활동자

료를 4종 이상 다양하고 충분히 마련하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표 4> 보육환경 영역 지표의 실현성

항 목	인증경험 없음	인증경험 있음	t
	(n=62) M(SD)	(n=131) M(SD)	
보육실의 공간 배치	3.79(0.83)	3.97(0.85)	1.38
보육실내 영유아의 휴식공간	3.66(1.04)	3.74(0.92)	0.54
옥외놀이터와 놀이기구	3.58(1.14)	3.35(1.10)	-1.34
신체(대근육, 소근육) 활동자료	3.65(0.91)	3.70(0.93)	0.40
언어활동 자료	3.66(0.92)	3.93(0.82)	1.97
자연탐구(수, 과학) 활동자료	3.73(0.87)	3.81(0.94)	0.59
예술 활동자료	3.61(0.86)	3.98(0.83)	2.82**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 자료	4.05(0.82)	4.26(0.77)	1.74
비품과 활동자료의 보관	3.71(1.03)	3.89(0.90)	1.20
보육교사를 위한 공간	2.89(1.15)	2.88(1.14)	-0.05
보육교사용 참고자료	3.74(0.94)	3.85(0.94)	0.78
전 체	3.64(0.62)	3.76(0.57)	1.31

** $p < .01$

2) 운영관리

운영관리 영역 평가인증지표에 대한 교사의 실현성 인식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운영관리 영역의 12개 지표항목에 대한 실현성 인식 정도는 5점 만점에 인증 경험 없는 보육교사의 전체평균이 4.01점(SD=.71)로 인증경험이 있는 보육교사의 4.19점(SD=.80) 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세부지표 중 '보육시설의 운영방침 및 정보안내'에서 인증경험이 있는 보육교사의 실현성 평균 점수는 4.18점(SD=.79)인 것에 비하여 인증경험이 없는 보육교사의 실현성 평균 점수는 3.90(SD=.82)점으로,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2.21, p<.05$). 즉, 인증경험이 있는 보육교사가 인증경험이 없는 보육교사에 비해 운영방침이 문서로 만들어져 있고 이를 보육교직원이나 부모에게 안내하는 것이 실현성이 높다고 보는 경향이 높았다.

'원아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도 인증경험이 있는 보육교사의 평균은 4.29(SD=.75)임에 비하여 인증경험이 없는 보육교사의 평균은 4.05(SD=.80)로, 인증경험이 있는 경우 신입 원아의 적응을 위한 과정이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원아문서(생활기록부)가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것에 대해 실현성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

이는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t=2.05, p<.05$).

‘보육교직원의 근로계약’ 역시 인증경험 유무별 실현성 인식에 차이가 있었는데, 인증경험이 있는 교사는 평균 4.38점($SD=.79$)으로 인증경험이 없는 보육교사의 평균 4.08점($SD=.98$)보다 높았다. 즉, 인증경험이 있는 교사는 인증경험이 없는 교사에 비해 모든 종사자에 대한 복무규정이 명확하고 근로계약서가 갖춰져 있을 것에 대해 실현성이 높다고 보는 경향이 강했다.

<표 5> 운영관리 영역 지표의 실현성

항 목	인증경험 없음	인증경험 있음	t
	(n=62) M(SD)	(n=131) M(SD)	
보육시설의 운영방침 및 정보안내	3.90(0.82)	4.18(0.79)	2.21*
원아에 대한 관리	4.05(0.80)	4.29(0.75)	2.05*
보육실의 교사 대 아동 비율	4.11(0.94)	4.25(0.91)	0.98
종사자의 근로계약	4.08(0.98)	4.38(0.79)	2.29*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업무수행	4.29(0.80)	4.40(0.79)	0.87
종사자의 교육	4.21(0.81)	4.32(0.79)	0.89
신입원아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4.05(0.80)	4.27(0.90)	1.77
보육시설과 가정간 의사소통	4.15(0.90)	4.30(0.77)	1.21
보육시설에서의 부모참여	3.81(0.96)	4.02(0.93)	1.45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3.81(0.94)	4.08(0.96)	1.89
지역사회와의 협력	3.89(0.94)	3.98(0.94)	0.68
영유아가족의 문제에 대한 이해와 지원	3.74(0.81)	3.84(0.91)	0.72
전 체	4.01(0.71)	4.19(0.80)	1.82

* $p<.05$

3) 보육과정

보육과정 영역 평가인증지표에 대한 교사의 실현성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표 6>과 같다. 보육과정 영역의 14개 지표항목에 대한 실현성 인식 정도는 5점 만점에 인증경험 없는 보육교사의 전체평균이 3.91점($SD=.61$)로 인증경험이 있는 보육교사의 4.03점($SD=.85$) 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세부지표 중 ‘보육계획안의 수립’에서 인증경험이 있는 보육교사의 평균은 5점 만점에 4.40점($SD=.72$)으로 인증경험이 없는 보육교사의 평균 4.16점($SD=.7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2.10, p<.05$).

그 외 세부지표의 경우, 인증경험이 있는 보육교사의 평균이 인증경험이 없는 보

육교사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일상생활 관련활동과 같은 세부지표는 인증경험이 없는 보육교사의 평균이 인증경험이 있는 보육교사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이들 차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표 6> 보육과정 영역 지표의 실현성

항 목	인증경험 없음	인증경험 있음	t
	(n=62) M(SD)	(n=131) M(SD)	
보육계획안의 수립	4.16(0.75)	4.40(0.72)	2.10*
보육활동 계획의 균형과 진행	4.05(0.78)	4.21(0.82)	1.27
자유선택활동 시간과 운영	4.11(0.75)	4.16(0.82)	0.40
실외활동 시간과 운영	3.53(1.02)	3.81(0.98)	1.81
일과의 통합적 운영	3.26(1.12)	3.43(1.16)	0.95
일상생활 관련활동	4.06(0.83)	4.03(0.90)	-0.25
보육과정 평가 및 영유아 활동 관찰	4.10(0.80)	4.18(0.87)	0.60
신체활동	3.92(0.87)	4.14(0.81)	1.70
언어활동	3.76(0.80)	4.00(0.89)	1.18
기본생활 관련 활동	4.16(0.85)	4.33(0.71)	1.42
사회관계 증진 활동	3.82(0.90)	3.86(0.90)	0.29
자연탐구 활동	3.77(0.86)	3.79(0.97)	0.14
예술(음악, 동작, 미술) 활동	3.85(0.74)	3.15(0.85)	0.78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	4.11(0.85)	4.22(0.82)	0.85
전 체	3.91(0.61)	4.03(0.85)	1.80

* $p < .05$

4) 상호작용과 교수법

상호작용과 교수법 영역 평가인증지표에 대한 실현성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상호작용과 교수법영역의 11개 지표항목에 대한 실현성 인식 정도는 5점 만점에 인증경험 없는 보육교사의 전체평균이 4.05점(SD=.56)로 인증경험이 있는 보육교사의 4.15점(SD=.64) 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즐거운 식사(수유)와 간식, 자연스러운 배변경험, 영유아 존중 및 평등하게 대하기, 영유아 요구 및 질문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행동지도 시 긍정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또래 간 긍정적 상호작용을 격려하기, 자유놀이에 교사가 참여하기, 영유아 간 다툼 및 문제 상황에 개입하기, 교수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동기유발 및 호기심을 장려하기는 인증경험이 있는 보육교사에게서 인증경험이 없는 보육교사보다

실현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반면 세부지표 중 편안한 분위기의 낮잠은 인증경험이 없는 교사가 인증경험이 있는 교사보다 더 실현성이 높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증경험 유무별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상호작용과 교수법 영역 지표의 실현성

항 목	인증경험 없음	인증경험 있음	t
	(n=62) M(SD)	(n=131) M(SD)	
즐거운 식사(수유)와 간식	3.92(0.84)	4.08(0.80)	1.32
편안한 분위기의 낮잠	4.18(0.76)	4.14(0.85)	-0.32
자연스러운 배변경험	4.15(0.70)	4.28(0.69)	1.28
영유아 존중 및 평등하게 대하기	4.19(0.70)	4.24(0.73)	0.39
영유아 요구 및 질문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4.13(0.64)	4.18(0.77)	0.44
행동지도 시 긍정적인 방법 사용	4.10(0.69)	4.18(0.70)	0.74
또래 간 긍정적 상호작용 격려	4.16(0.68)	4.24(0.69)	0.71
자유놀이에 교사 참여	3.92(0.73)	4.02(0.81)	0.79
영유아간 다툼 및 문제 상황 개입	3.95(0.78)	4.10(0.73)	1.28
교수법의 효과적인 사용	3.87(0.69)	4.05(0.74)	1.56
동기유발과 호기심 장려	3.98(0.69)	4.12(0.76)	1.26
전 체	4.05(0.56)	4.15(0.64)	1.02

5) 건강과 영양

<표 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강과 영양 영역 평가인증지표에 대한 교사의 실현성을 살펴보면 건강과 영양영역의 12개 지표항목에 대한 실현성 인식 정도는 5점 만점에 인증경험 없는 보육교사의 전체평균이 4.20점(SD=.62)로 인증경험이 있는 보육교사의 4.38점(SD=.61) 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세부 지표 중 '식자재, 조리 및 배식과정의 위생D=관리'에서 인증경험이 있는 보육교사의 평균은 5점 만점에 4.47점(SD=.66)으로 인증경험이 없는 보육교사의 평균 4.21점(SD=.6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2.49, p<.05$).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의 보호'에 있어서도 인증경험이 있는 보육교사의 실현성 인식은 평균 4.43점(SD=.67)으로 인증경험이 없는 보육교사의 평균 4.18점(SD=.74) 보다 높아, 인증경험이 있는 보육교사는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를 위한 적절하고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이를 한결같이 시행할 것에 대해 실현성이 높다고 보는 경향이 강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t=2.35,$

$p < .05$).

‘영유아와 종사자의 건강관리’ 역시 인증경험 유무별 실효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30, p < .05$). 인증경험이 있는 보육교사는 평균 4.27점($SD=.81$)으로, 인증경험이 없는 보육교사의 평균 3.98점($SD=.84$)에 비해 전염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영유아와 종사자의 건강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실현성이 높다고 보는 경향을 드러내었다. 또한 ‘영유아를 위한 간식’에서도 인증경험이 있는 보육교사는 평균 4.44점($SD=.78$)을 기록하며 인증경험이 없는 보육교사의 평균 4.19점($SD=.90$)보다 높아, 간식이 오전과 오후로 다양하게 제공되며 신선한 과일 및 채소가 주 3회 이상 제공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더 강했다. 인증경험 여부에 따른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1.98, p < .05$).

기타 실내 공간의 청결, 보육실의 환기·채광·조명·온도관리, 놀잇감의 청결, 화장실과 세면장의 청결, 조리실의 공간과 설비의 위생적 관리, 영유아와 보육교사의 청결 유지, 개별 침구의 사용 및 관리, 영유아를 위한 급식과 같은 세부지표의 경우, 인증경험이 있는 보육교사의 평균이 인증경험이 없는 보육교사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8〉 건강과 영양 영역 지표의 실현성

항 목	인증경험 없음	인증경험 있음	t
	(n=62) M(SD)	(n=131) M(SD)	
실내 공간의 청결	4.21(0.81)	4.34(0.74)	1.14
보육실의 환기·채광·조명·온도관리	4.13(0.69)	4.31(0.76)	1.60
놀잇감의 청결	4.13(0.67)	4.21(0.74)	0.76
화장실과 세면장의 청결	4.19(0.67)	4.26(0.74)	0.60
조리실의 공간과 설비의 위생적 관리	4.19(0.81)	4.39(0.72)	1.70
식자재, 조리 및 배식과정의 위생적 관리	4.21(0.68)	4.47(0.66)	2.49*
영유아와 보육교사의 청결 유지	4.35(0.66)	4.48(0.65)	1.26
개별 침구의 사용 및 관리	4.31(0.76)	4.50(0.64)	1.89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의 보호	4.18(0.74)	4.43(0.67)	2.35*
영유아와 종사자의 건강관리	3.98(0.84)	4.27(0.81)	2.30*
영유아를 위한 급식	4.34(0.70)	4.47(0.72)	1.16
영유아를 위한 간식	4.19(0.90)	4.44(0.78)	1.98*
전 체	4.20(0.62)	4.38(0.61)	1.90

* $p < .05$

6) 안 전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전 영역 평가인증지표에 대한 교사의 실현성 인식을 살펴보면 안전영역의 10개 지표항목에 대한 실현성 인식 정도는 5점 만점에 인증경험 없는 보육교사의 전체평균이 4.20점(SD=.66)로 인증경험이 있는 보육교사의 4.33점(SD=.64) 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세부지표 중 ‘영유아의 안전한 인계과정’에서 인증경험이 있는 보육교사의 평균은 5점 만점에 4.38점(SD=.73)으로 인증경험이 없는 보육교사의 평균 4.10점(SD=.7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2.50, p<.05$). 즉, 인증경험이 있는 경우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인계과정에 대한 자체규정이 마련되고 이를 잘 지킬 것에 대해 실현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보육실의 안전관리, 실내시설의 안전관리, 실외시설의 안전관리, 실내외 놀잇감의 안전관리, 실내외 위험한 물건의 보관, 영유아에 대한 성인의 보호, 보육시설의 안전한 차량 운행,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소방훈련과 같은 세부지표의 경우, 인증경험이 있는 보육교사의 평균이 인증경험이 없는 보육교사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비상사태를 대비한 시설 및 설비와 대처방안과 같은 세부지표는 인증경험이 있는 보육교사의 평균이 인증경험이 없는 보육교사의 평균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9> 안전영역 지표의 실현성

항 목	인증경험 없음	인증경험 있음	t
	(n=62)	(n=131)	
	M(SD)	M(SD)	
보육실의 안전관리	4.16(0.83)	4.29(0.80)	1.03
실내시설의 안전관리	4.26(0.79)	4.30(0.79)	0.33
실외시설의 안전관리	4.02(0.95)	4.24(0.81)	1.67
실내외 놀잇감의 안전관리	4.10(0.74)	4.29(0.74)	1.70
실내외 위험한 물건의 보관	4.24(0.74)	4.44(0.65)	1.92
영유아에 대한 성인의 보호	4.23(0.73)	4.34(0.73)	1.04
영유아의 안전한 인계과정	4.10(0.76)	4.38(0.73)	2.50*
보육시설의 안전한 차량 운행	4.16(0.93)	4.22(0.94)	0.42
비상 대비시설 및 설비와 대처방안	4.35(0.66)	4.31(0.75)	-0.38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소방훈련	4.35(0.73)	4.44(0.70)	0.80
전 체	4.20(0.66)	4.33(0.64)	1.29

* $p < .05$

VI.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평가인증 경험에 따른 평가인증제의 운영과 제2차 평가인증 지표의 실현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토대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평가인증경험에 따른 평가인증제 운영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평가인증통과 후 사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인증경험이 없는 교사는 '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만, 인증경험이 있는 교사는 '보육교사의 의지 및 지속적 근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평가인증 경험이 없는 교사는 평가인증 지표에 대한 이해 등의 어려움으로 평가인증의 사후 유지 관리를 위한 구체적 방법을 교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된다. 반면 평가인증 경험이 있는 교사가 평가인증 통과 시설의 사후유지 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육교사의 의지 및 지속적 근무를 들었다는 사실은 영유아에게 직접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사 스스로 자신의 지속적인 의지와 노력 없이는 보육의 질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가인증 통과 후에도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교사교육과 자율장학 등의 노력이 필요(장상란, 2008)한데 이는 보육교사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일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교사들은 자신감과 자부심,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김향은, 2008), 평가인증 참여를 통해 물리적 환경구성, 유아에 대한 이해, 교사와 유아 간 상호작용, 교육과정의 계획·실시·평가 능력의 향상 등 보육교사로서 자신의 전문성이 증진되었다고 인식(채혜선·현정희, 2008)하기 때문에 평가인증 통과 후 사후유지 관리를 위해 평가인증에 참여한 교사의 지속적 근무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선행연구(강옥주, 2008; 김동례, 2007; 이은혜··유희정·김은기, 2006)에 의하면 평가인증으로 말미암은 업무 과중, 심적 부담감 때문에 보육교사의 소진현상이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평가인증 통과 후 보육교사의 이직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로 말미암아 평가인증 통과 시설의 보육 수준이 낮아질 것을 우려해서 보육교사의 지속적 근무가 사후유지관리에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평가인증제를 운영하는 정부에서는 평가인증에 참여한 보육교사의 소진 요인을 살펴서 개선하며 평가인증을 준비하고 통과한 교사의 노력

과 경험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처우 개선 등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조사대상자의 상당수가 평가인증 조력자로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는 2008년 보육시설 평가인증 사업성과 연구보고서(이옥 등, 2009)의 조력에 대한 보육교사의 요구와 일치하는 부분으로 평가인증 지표를 명확히 이해하고 각 보육시설의 특성에 맞는 조력을 해 줄 수 있는 전문가적 차원의 조력을 보육현장에서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더불어 평가인증을 위해 도움이 되는 조력방법으로는 교사의 인증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인증지표에 대한 교사교육'과 '우수 어린이집 방문을 통한 조력'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평가인증의 목표인 자발적 참여의지에 맞는 부분으로 교사교육을 평가인증을 시행하기 전 실시하는 참여설명회 1회에 그치지 않고 영역별 지표에 대한 명확한 질문과 교육을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방법의 제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의 우수사례와 준비과정 등을 소개하는 사례와 안내서와 같은 실제적인 자료가 마련되어 보육현장에 제공되어야 한다(이송희 등, 2009)는 의견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평가인증 참여단계에 따른 평가방법에는 인증경험이 없는 교사와 있는 교사 모두 참여 단계가 높을수록 간소화된 지표를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김수향과 최연희(2009)의 평가인증에 통과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식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가인증을 준비하면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의 과중한 업무 때문에 3년 후 재인증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보육교사는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매우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에 대한 부담감 탓에 평가인증의 참여단계가 높을수록 간소화된 지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보육교사의 업무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평가인증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력지원 등을 통한 탄력적인 근무시간 운영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보육교사의 평가인증 경험에 따른 제2차 인증지표의 실현성 인식은 전반적으로 평가인증 참여경험이 있는 교사가 인증경험이 없는 교사에 비해 평가인증의 모든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평가에 대한 인식은 종사자가 처한 상황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강수경, 2009)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인증에 참여한 교사가 평가인증을 준비하면서 받은 교육 등을 통해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일 수도 있고, 평가인증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얻게 된 자신감(김향은, 2008)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채혜선과 현정희(2008)의 연구에 의하면 평가인증 참여경험이 있는 교사가 경험이 없는 교사에 비해 보육교사의 전문성 발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평가인증 참여 덕분에 지식

과 기술발달 측면에서 교사의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평가인증 경험에 따른 실현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세부지표항목은 보육환경 영역의 '예술(미술·음악·동작)활동자료' 운영관리 영역의 '보육시설의 운영방침 및 정보안내', '원아에 대한 관리', '종사자의 근로계약', 건강과 영양 영역의 '식자재, 조리 및 배식과정의 위생적 관리',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의 보호', '영유아와 종사자의 건강관리', '영유아를 위한 간식', 안전영역의 '영유아의 안전한 인계과정'으로 평가인증 경험이 있는 보육교사가 경험이 없는 교사에 비해 실현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인증 지표 중 보육환경은 보육의 질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이송희 등, 2009). 보육평가인증사무국(2007)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대부분 시설(88.7%)이 평가인증에 참여한 이후로 보육의 질적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었고, 그 이유로 보육환경의 질적 수준의 개선을 드는 경우가 많다. 1차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을 연구 대상으로 해서인지 보육교사의 인증경험 여부에 상관없이 보육환경에 대한 지표항목의 실현성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예술(미술·음악·동작)활동자료의 실현성 인식에서만 인증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보육시설의 운영 현황에 관한 박애경(2007)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듯 실제 보육시설에서 동작교육 및 창의적 표현활동이 저조하게 일어나고 있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평가인증 경험이 있는 교사는 적절한 횟수의 예술활동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그에 따라 예술(미술·음악·동작)활동자료를 갖추는 경험을 이미 해본 데 비하여, 인증경험이 없는 교사는 보육과정의 저조한 예술 활동을 생각할 때 평가지표항목에 나타난 기준을 실현하기가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운영관리 영역에서 인증경험이 없는 교사는 '보육시설의 운영방침 및 정보안내' 지표의 실현성에 대한 인식이 인증경험이 있는 교사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평정근거에 포함된 보육시설의 주요 정보인 보육철학, 보육목표, 보육방침, 운영시간, 연령별 집단크기와 교직원 수, 보육환경 등에 대해 인증경험이 없는 보육교사가 상대적으로 인식이 낮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종사자의 근로계약'의 실현성 인식도 인증경험이 없는 교사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평가인증 경험이 있는 교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평가인증 지표에서 평정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 등의 근무여건을 원장과 협의해야 함을 이해하는 반면 인증경험이 없는 교사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평가인증 지표에서 '원아에 대한 관리'는 원아의 생활기록부, 관찰기록 등에 대한 기록 관리를 의미한다. 평가인증 준비 시 교사는 문서의 작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하영례·고경필, 2009.) 인증경험이 있는 교사는 문서 작성방법에서도 인증경험이 없는 교사에 비해 전문성을 지니기 때문에 실현성 인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과 영양 영역의 ‘식자재, 조리 및 배식과정의 위생적 관리’,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의 보호’, ‘영유아와 종사자의 건강관리’, ‘영유아를 위한 간식’ 항목에서 평가인증 경험이 있는 보육교사가 경험이 없는 교사에 비해 실현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역은 ‘식자재 조리 및 배식과정의 위생적 관리’, ‘영유아를 위한 간식’ 항목에 조리과정, 유통기한경과 식자재, 우유와 마실 물의 관리, 조리과정, 배식과정, 식단표와 제공기록, 채소와 과일의 제공 횟수 등의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됨을 고려할 때 구체적으로 지표를 인식하고 있는 인증경험 교사와 인증경험이 없는 교사 간에 실현성 인식에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안전영역에서는 ‘영유아의 안전한 인계과정’에 있어서 인증경험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이 항목에서 평정근거는 영유아의 인계과정에 대한 규정과 그 규정에 따른 일관성 있는 귀가지도, 귀가동의서 구비 여부이다.

위에서 살펴본 연구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하여 평가인증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1차 평가인증에 통과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간에도 평가인증 경험 여부에 따라 제2차 평가인증지표의 실현성 인식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2차 평가인증지표를 적용한 최초 혹은 재인증을 준비하는 보육교사에게 평가인증 경험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표교육이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인증제를 운영하는 정부에서는 평가인증을 위한 참여 설명회 등을 평가인증 경험이 있는 교사와 없는 교사를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실시하며, 지역별 보육시설정보센터 등을 통한 교사들 간의 자율장학을 지원하고, 평가인증을 위한 보육시설의 자체 점검 과정에서 영유아의 보육에 소홀하지 않으면서 평가인증 참여 경험이 있는 교사가 비참여교사를 일대일로 조력할 수 있도록 대체 교사를 고용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에 대한 교육은 지표이해 교육뿐만 아니라 평가인증에 통과한 어린이집의 우수 사례와 준비과정 등을 소개하는 영역별 안내서와 같은 실제적인 자료가 마련되어 보육현장에 제공되어야 하고, 우수 어린이집 방문을 통한 체험교육의 기회가 자주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이에 따른 인력지원으로 교사가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것이 자발적이고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가인증을 통해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직원 간의 단합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김동례, 2007). 따라서 보육시설의 원장은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은 물론 평가인증 통과 후 질적인 수준을 유지, 관리하는 과정에서 평가인증 참여교사와 비참여교사

간에 짝꿍 제도를 도입하여 평가인증 지표를 이용하여 보육의 각 영역을 함께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보육시설의 질을 개선함은 물론 전체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평가인증이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의 사후유지를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은 물론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진된 보육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평가인증에 통과한 시설에 대해 여러 가지 형태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때도 있다. 그러나 교사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되기보다는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별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평가인증 통과 후 근무를 시작한 교사는 성과급의 혜택을 받지만 정작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 참여한 교사가 이직한 경우는 평가인증 통과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허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평가인증에 참여한 보육교사에게 직접적이고 형평성 있는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평가인증 참여에 따른 성과급 지급 방식을 개선하고, 평가인증 통과 후 이직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성과보수지급, 특별 휴가기간 제공 등 국가적 차원의 차별화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이 경기도, 서울특별시 일부 지역, 인천광역시 일부 지역의 평가인증에 통과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로 제한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원장, 또는 평가인증에 통과하지 않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확대하여 제2차 평가지표 운영 및 지표의 실현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본 연구는 2011년 제1차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재인증에 앞서 새로이 보완된 제2차 평가인증제도의 운영 및 평가지표의 실현성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을 살펴보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한 체계적인 평가인증 지표를 마련하고,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보육교사의 효율적인 지표교육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달금·이영석(2006).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에 관한 문제점 분석. **미래유아교육 학회지**, 13(4), 158-216.
- 강수경(2009). 유치원 평가의 과정과 지표에 대한 교사와 평가위원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강옥주(2008).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평가인증 지표에 관한 인식 연구.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금미숙(2007).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서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평가인증에 대한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동례(2007). 보육시설 종사자가 인식한 평가인증제의 운영과정과 사후유지관리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복희(2010).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효과에 관한연구. 건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수향·최연희(2009). 평가인증에 통과한 보육시설의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연구. **아동교육학회지**, 18(2), 65-78.
- 김향은(2008). 평가인증에 참여한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경험을 통해 본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효과. **아동학회지**, 29(1), 169-188.
- 나정(2004).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OECD의 진단과 대정부 권고. 한국교육개발원 학생복지연구실.
- 라소영(2006). 평가인증에 대한 보육시설의 인식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복매(2006). 보육시설 평가인증 제도에 관한 시설장의 인식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8), 1-11.
- 박은영(2008). 영유아보육환경의 질적 수준 및 교사의 요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주(2007).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의 중요성과 실현성에 대한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인식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애경(2007).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에 따른 보육시설운영 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7(2), 25-42.
- 백영애·심성경·최대훈·박주희(2005).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실태. **영유아교육연구**, 8, 203-218.
- 서문희·신희연·송신영(2009). 보육시설 평가인증 효과분석 사전·사후관찰 평가

- 비교. 육아정책개발연구소.
- 서문희·이상헌·임유경(2002).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도입 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 서현(2007).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위한 준비과정에 나타난 보육교사 경험의 의미. **한국영유아보육학**, 50, 1-29.
- 신귀순(2006). 보육의 질이 영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심인선(2007). 경상남도 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평가인증지원방안.
- 양옥승(2000). 유아교육·보육기관 평가인증제 개발연구. **아동학회지**, 21(4), 117-196.
- 오정수·정익중(2008). **아동복지론**. 서울: 학지사.
- 원정아·이진희(2008).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 전후의 교사 효능감과 평가인증 과정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아동교육학회지**, 17(4), 213-224.
- 유희정·문무경(2003).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보고서.
- 유희정(2008). 보육정책: 미래지향적 추진방향과 과제. 보육정책 토론회자료.
- 유희정·이은혜·최정운·김문정(2007). 평가인증을 통한 보육시설 서비스개선 효과 분석 및 발전 방안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 육아정책개발센터(2010). **육아정책 포럼**. Vol, 3(4).
- 육아정책개발센터(2009).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행의 평가와 추진방안 연구.
- 이송이·손여경(2009).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 관련연구에 관한 메타분석, **유아교육. 보육행정연구**, 13(4), 247-266.
- 이옥·유희정·이미화·김온지·이원선(2008). 보육시설 평가인증사업의 성과(2003~2008),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보고서.
- 장상란(2008). 평가인증 후 보육시설 종사자의 평가인증에 대한 인식 및 사후 관리 실태.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혜숙(2008).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보육재정지원 제도의 개선방안.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숙희(2011).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직무착근도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해선·현정희(2008). 보육시설평가인증 참여유무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기평가전문성 발달수준에 관한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52, 63-84.
- 하영례(2008).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준비과정의 어려움에 관한 질적 연구, **유아교육**

학회지, 12(4), 25-47.

하은경·김주후·김경란(2008).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평가인증 참여 및 만족도 분석:

평가인증심의 통과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4), 153-176.

황인숙(2006). 보육시설 평가인증 제도에 관한 조사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NAEYC(2009). <http://www.naeyc.org/>

NCAC(2009). <http://www.ncac.gov.au/>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the childcare teachers regarding accreditation procedures and feasibility of the second accreditation index according their past participation in the accreditation process.

The objects were 193 childcare teachers working at child care centers that were accredited using the initial accreditation index.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frequency, percentile, χ^2 , and t-test.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hildcare teachers without accreditation experience perceived 'continuing education of child care center directors and teachers' to be the most important for quality maintenance after successful accreditation. In contrast, childcare teachers with accreditation experience placed the most importance on 'childcare teachers' motivation and continuing enrollment'.

Second, childcare teachers with accreditation experience perceived higher feasibility in the subcategories of 'art activity materials' in the category of child care environment, 'providing operation policies and information of child care teachers', 'care for children', and 'employment contract' in the operation & management category, 'sanitary management of food, cooking and feeding', 'care of sick or injured child', 'health management of children and childcare teachers', 'snacks for children' in the category of health and nutrition and 'safe procedures for handing over children' in the category of safety.

In general, childcare teachers with accreditation experience perceived higher feasibility of the second accreditation index in all categories.

Key words : Child care center accreditation system,
the second accreditation index, childcare teacher

2011. 09. 30. 투고 : 2011. 12. 11. 수정원고접수 : 2011. 12. 16. 최종게재결정